

## Contents



###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미국의 유니온 퍼시픽, 철도회사 시장가치 가장 높게 나타나



###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머스크 컨테이너선, 첫 북극항로 운항 성공
2. 인도, 사가르말라(SagarMala)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물류혁신 순항
3. Kuehne + Nagel, 인도네시아 선도 물류기업 인수
4. 미국 샌디에고항, 사이버 공격 받아

### 명사 스피치

“세계는 이미 차세대 해상물류 시스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IT기술들이 해운·조선 산업에 접목되는 현상이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해상물류에 적용될 IT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이러한 조건을 적극 활용해 기획단이 앞장서서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 정책 수립, 해상물류 전문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 해상물류의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혁신성장 일자리 기획단 부단장  
(2018. 10. 10. / 현대해양 인터뷰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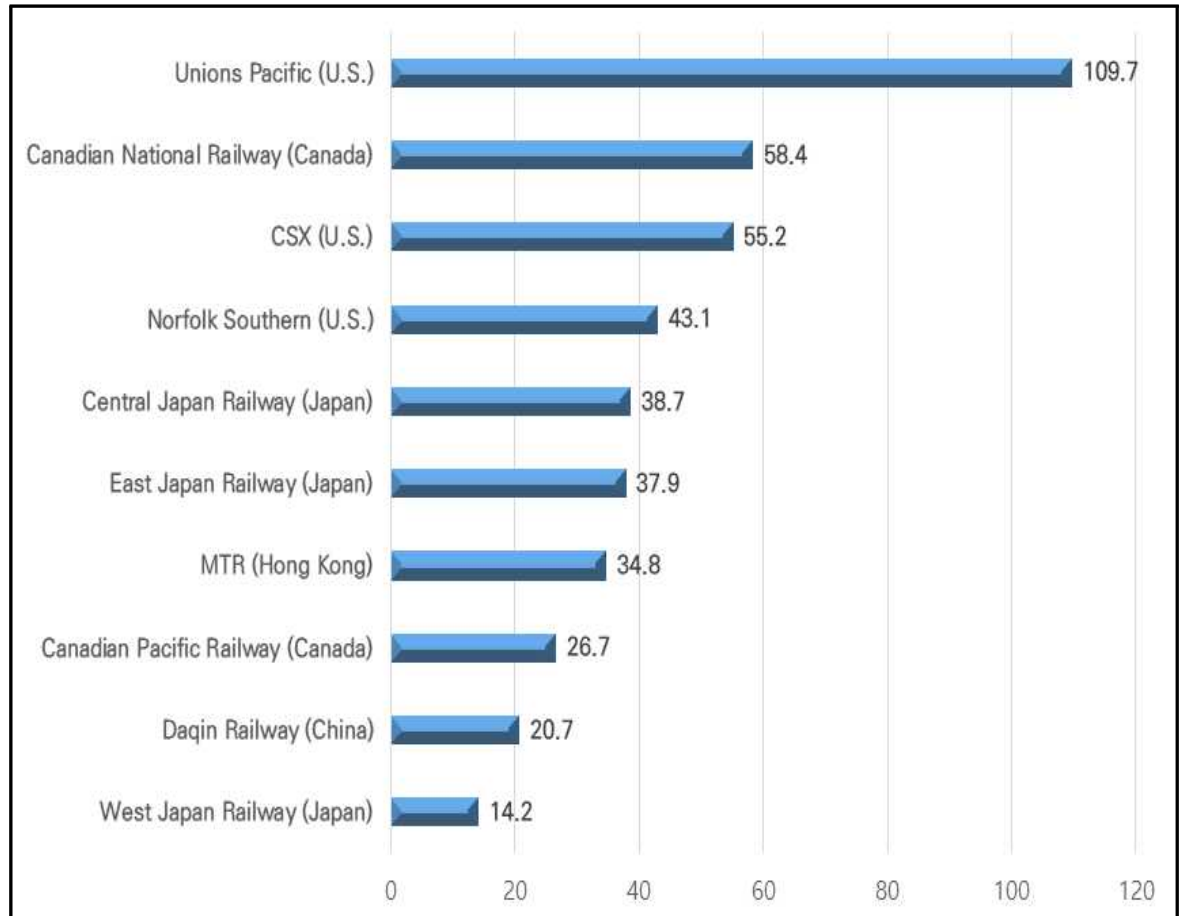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미국의 유니온 퍼시픽, 철도회사 시장가치 가장 높게 나타나

세계 주요 철도회사 시장가치

(단위 : 10억 U.S. 달러)



자료 : www.statista.com

- 2018년 6월 기준, 세계 주요 철도회사 시장가치는 미국의 유니온 퍼시픽(Union Pacific)사가 약 1,097억 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세계 주요 철도회사 시장가치 기준, 10위 내에 포함된 철도사 중 미국과 일본이 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나다 2개, 홍콩 1개, 중국 1개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참고자료 : www.statista.com, 2018.10.05.

김병주 연구원

051-797-4784, bjkim17@kmi.re.kr



## 머스크 컨테이너선, 첫 북극항로 운항 성공

- 극동아시아에서 출발해 유럽으로 향하는 머스크라인의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 시험운항에 성공함
  - 운항에 투입된 선박은 3,596TEU급의 피더션 벤타 머스크(Venta Maersk)호이며, 8월 22일 블라디보스톡항을 출항하여, 보스토치니항과 부산항을 거쳐 9월 28일 상트페테르부르크항에 입항함
  - 선박에는 LNG, 탱크컨테이너 등이 적재되었으며,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사이의 베링해협을 통과 후 북극해를 지나 유럽에 도착함
- 이번 시험운항은 북극항로 운항 경험을 쌓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단발성으로 이루어짐
  - 머스크라인 측은 이번 운항이 특이사항 없이 당초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으며, 여러 측면에서 북극항로에 대한 운항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언급함
  - 세계적 차원의 기후 변화에 따라 북극항로 이용은 새로운 기회로 주목받고 있으나, 머스크라인 측은 아직 북극 항로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은 없다고 밝힘
  - 다만, 머스크라인은 발트해를 거쳐 러시아 시장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염두해 3,596TEU급의 내빙 선박을 7척 건조하였으며, 이번 운항에 성공한 벤타 머스크호는 그 중 한 척임
- 현재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은 비용적, 환경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기후변화 및 수요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음
  - 북극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북극항로관리국(Northern Sea Route Administration), 쇄빙선사와의 긴밀한 협력과 빙해도선사(ice pilot) 및 숙련된 승무원 등의 도움이 필요함
  - 현재 북극항로는 1년 중 3개월 정도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며, 환경단체는 선박사고 시 대응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름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음

북극항로 운항에 투입된 벤타 머스크(Venta Maersk)호



자료 : [www.workboat.com](http://www.workboat.com), MAERSK TANKERS, NORSEPOWER

■ 참고자료 : [www.workboat.com](http://www.workboat.com), 2018.10.8.

## 인도, 사가르말라(SagarMala)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물류혁신 순항

- 인도 정부는 2015년 국가물류혁신 프로젝트인 사가르말라(SagarMala) 프로젝트를 수립, 항만 및 배후 도로, 철도 등의 연계개발을 통한 국가물류경쟁력 제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150여개의 사가르말라 개발 프로젝트 대부분은 해양과 관련된 사업으로 이 중 40개 프로젝트는 항만 물류와 관련된 사업이며 인도정부는 항만개발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2025년까지 약 20조원을 투입해 12개 메이저 항만의 확장 및 현대화, 6개 신항개발, 항만과 배후지역 간의 연계교통망 확충, 연안지역 개발, 크루즈 등 해양관광 개발, 항만주변 산업화 등의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최근 '사가르말라' 계획의 일환으로 인도남부 타밀나두 지역 신규 환적터미널인 에나암(Enayam)항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 되었으며, 에나암항은 향후 인도 환적물동량 처리를 위한 핵심 거점항만이 될 전망이다
- 인도정부는 사가르말라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및 국제 화물에 대한 물류비용절감을 핵심 선결과제로 선정 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현재 인도 GDP에서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 수준으로 인도정부는 사가르말라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물류비 비중을 약 9% 수준까지 낮춰 연간 약 500억 달러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노력 중이며, 이를 위해 인도 내 국내화물 운송에서 연안해운의 비중을 약 7% 수준까지 증대 시킬 계획임
  - 현재 개발 중인 신규 환적항만 에나암(Enayam)항 개발이 완공되면 현재 콜롬보(Colombo)항, 싱가포르(Singapore)항, 포트클랑(Port Klang)항을 경유하는 환적물동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약 220억 원 수준의 환적비용 절감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정부는 현재 약 15억 톤 수준인 인도항만 전체 화물수용 능력을 2025년까지 약 30억 톤 수준으로 확대하고 항만과의 연계성(connectivity) 강화를 위해 항만배후 특별경제구역(SEZ) 및 도로, 철도 등과의 네트워크 연계개발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임.

사가르말라(SagarMala) 프로젝트 대상항만 현황도



출처: Ministry of Shipping Government of India, SAGARMALA, executive summary. p16

참고자료 :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economy-policy/> 2018.10.06.

## Kuehne + Nagel, 인도네시아 선도 물류기업 인수

- 최근 스위스의 Kuehne + Nagel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선도 물류기업인 Wira Logistics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남
  - Wira Logistics는 PT Wicaksana Overseas International의 자회사로써 인도네시아의 최대 유통 업체 중 하나임
  - 이번 인수를 통해 K+N은 인도네시아 내 창고 및 유통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힘
- K + N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중산층 증가, 디지털 세대 증가 등의 측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인터넷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함
  - 특히 인도네시아는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기업에게 중요한 소비 시장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인수를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맞는 전략을 펼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물류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는 K + N의 사업 확장에 있어 주요 대상 국가였던만큼 이번 인수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남
- K + N 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Jens Drewes 사장은 인도네시아의 약17,000개의 섬이 자연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으로써 물류부문에 있어 상당한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기업에게는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라고 언급함
  - 인도네시아 물류협회(Indonesia Logistics Association)는 올해 자국의 물류시장이 10~12%, 전자상거래는 최대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올해 발표된 이머징 국가의 매력도 순위(Transport Intelligence Agility Emerging Markets Index)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2017년 가장 매력적인 시장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순위 상승한 것임
  - 전반적으로 인프라의 개선 및 세관 절차의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K + N은 이번 인수를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의 고객에게 완벽한 통합형 물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참고자료 : <https://theloadstar.co.uk>, 2018.10.2. / <https://logisticsmagazine.com.au>, 2018.10.3. / <http://www.themeditelegaph.com>, 2018.10.6.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 미국 샌디에고항, 사이버 공격 받아

- 지난 9월 25일, 샌디에고 항은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당함
  - 해당 사건은 주로 내부 행정 기능에만 피해를 주어 항만 서비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특히 선박 스케줄과 화물의 하역 및 운송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힘
  - 샌디에고 항만국 대표인 Randa Coniglio에 따르면 샌디에고항을 공격한 해커들은 랜섬웨어를 통한 공격을 멈추는 조건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함
  - 요구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 FBI와 미국 국토 안보국(United States Security)에 의해 조사되고 있음
- 샌디에고 항만국은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임
  - 샌디에고 항만국은 공공안전과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들을 즉시 동원함
  - 이를 통해, 사건의 범위와 시기,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시스템 복구 계획을 수립 중임
- 디지털화, 무인자동화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사이버 보안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4차 산업 혁명 등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화, 자동화, 로봇틱스화가 진행 중임
  - 작업 효율 향상과 작업자 안전 확보만큼이나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 역시 신기술 개발과 병행되어야 함

### 심각해지는 사이버 보안 문제



자료 :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san\\_diego\\_survives\\_cyberattack](https://www.porttechnology.org/news/san_diego_survives_cyberattack)

참고자료 : <https://www.porttechnology.org>, 2018.10.5

김효재 연구원

051-797-4686, hj\_kim@kmi.re.kr